

정성태 《이주와 정주의 삶: 고려사람》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에 흩어진 조각들

글 박윤채 기자(yoonbluu@naver.com)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고려사람〉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뜻깊은 전시를 열어온 사진작가 정성태. 그는 한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고려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카메라에 담았다. ‘고려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은 구소련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로, 1937년 강제 추방에 의해 조국을 떠나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각자의 정주공간에 머물고 있다. 정성태 작가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사람(카레이스키)들이 가진 삶에 대한 애착과 그들의 생활상이 투영된 정주공간을 사진 속에 여과 없이 기록했다. 그 사진은 단순히 표면적인 기록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나눈 뒤 포착한 진솔한 초상화이자 삶의 모습 이기에 더 큰 감동을 지닌다. 한국-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이자 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이번 2017년에 진행된 《이주와 정주의 삶: 고려사람》 전시에서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바람과 같이 한민족이 겪은 이주와 정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바로 이 땅, 우크라이나의 외딴 곳에서 그분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그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꼈고, 그분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민족’이라는, ‘같은 피’라는 뜨거움이라고 할까.

오랜 시간 고려인 시리즈를 작업하면서 총 일곱 번 이상 우크라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먼 곳에서 직접 촬영하게 되기까지 특별한 작업 동기가 있었나? 사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슬럼프를 만나게 되는데, 나 역시 나의 내면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우연히 나의 오래된 자취와 흔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작업을 찾으려 인류의 어두운 역사와 이동과정에서 모티프를 얻어 나의 내적형상을 표현하고 이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려사람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고려인을 찍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작업은 아니다. 4년 전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폐허와 그곳에 재정착한 원주민인 ‘사모셀르(Samosely: self-settlers in Chernobyl)’들에 관심을 가지고 〈체르노빌(Breath in Chernobyl)〉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엿보게 되었다. 시작은 그랬다. 작품을 보면 고려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 그들의 어떤 면이 작가의 마음을 끌었나? 하루는 〈체르노빌〉을 촬영하는 일정 중에 짬을 내어, 〈고려사람〉 프로젝트의 파일럿 촬영을 해보기로 하고 현지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고려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첫 고려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중년의 고려인 부부를 만났다. 기다림에 지친 듯, 표정 없는 얼굴로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고려인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덧없음, 그리움, 회귀... 같은 감정을 느끼며 미묘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고려사람_박아뚜르_한자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고려사람_김 아나톨리_한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고려사람_고 알라_한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촬영을 끝내고 며칠 후 귀국행 기내에서 우리말 가사의 아리랑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찔렀다. 아마도 체르노빌로 돌아온 사모설 르, 무표정했던 고려인 아주머니, 그리고 구슬픈 가락의 아리랑이 제대로 공 명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2달 후 즈음, 그 아주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 을 들었다. 그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고려사람 들)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보았을 것 같 다.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교감을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바로 이 땅, 우크라이나의 외딴 곳에서 그분들의 집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그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꼈고, 그분들의 얼굴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민족'이라는, '같은 피'라는 뜨거움이라고 할까.

그분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교감을 나누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현 지 고려인협회와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방문자 리스트를 만들고 사전에 연 락을 취한 후 집으로 찾아가지만, 얼굴 생김새는 비슷해도 낯선 사람의 방문 을 그리 편하게 생각할리는 없었다. 특히 큼직한 촬영 장비를 들고 가서 설 문조사를 하고 또한, 촬영된 사진의 사용승낙까지 부탁드려야 했다. 그러나 이런 무리한 부탁에도 대부분은 아주 친절히 나를 반겨주셨다.

사진 촬영에 앞서 나는 항상 그분들과 적어도 2-3시간 정도의 교제를 갖는 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촬영시간을 가진다. 잠시지만 그들의 생활 속 일원 으로 들어가 공감하며 새로운 것이 열리기 시작할 때 셔터를 누른다.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의 거주 공간이 때론 넉넉하기도, 때론 협소하기도 했을 텐데, 촬영시 어 려움은 없었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도구나 오래된 사진, 고단했지만 삶의 애착이 묻어 나는 공간이 프레임 안에 놓이면 좋겠다고 상상했지만 기대와 달리 불가능 한 곳이 꽤 많았다. 촬영시 대체로 빛이 들어오는 채광방향에 순응하며 촬영 공간을 설정했다. 이분들의 주거공간이 다소 좁은 통로에 폐쇄적인 구조였 지만 나는 자연광의 변화무쌍한 리듬과 느낌을 인물과 공간의 성격에 어울 리도록 찾아야만 했다.

인물 못지않게 공간 역시 작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 거주라는 것 에 대한 의미가 그들에게는 남다른 것 같은데, 공간에 부여한 작가의 메시지가 궁금하다.

이분들의 거주공간을 찾아가보면 정서적으로 면면이 그리움이 흥건히 배어 있다는 느낌이 먼저 떠오른다. 아마도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팬텀림신드롬 (phantom limb syndrome)¹⁾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되려, 그들로부터 치료용 '거울상자(mirror box)²⁾를 보듯, 고향이라는 단어와 함께 한민족 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고려사람_정 알렉세이_한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고려사람_김 젠나_한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1) 팬텀림신드롬(phantom limb syndrome)은 없는 신체 부위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절단되어 존재하지 않는 팔다리가 아프고, 가렵고, 여전히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외과 수술을 경험한 환자의 60~80% 이상이 이 증상을 느낀다.
2) 거울상자(mirror box)는 환상사지(phantom limb) 치료를 위한 거울이 장치된 가상현실 상자이다. 정상인 팔과 환상의 팔을 상자 속으로 집어넣어 실제로는 거울에 비친 정상적인 팔을 보고 있지만 마치 두 팔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착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재활운동을 통해 환상팔에 대한 자발적 움직임을 회복하고 통증을 감소시킨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지나온 삶의 자취와 세월의 상흔, 그리고 가족의 모습 등이 궁금했고 때문에 사진의 결과물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치우쳤다. 지금도 가족이란 부분은 변함없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고되고 힘겨웠던 삶의 흔적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고려사람> 프로젝트의 큰 주제가 '이주와 정주의 삶'이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 이주와 정주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선택과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사진을 찍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인물표현과 함께 그들의 삶이 녹아든 주거공간도 덩달아 주목하게 된다. 이처럼 지나온 삶이 커져이 중첩된 정주공간에서 이분들이 보낸 세월을 읽어내고, 숨은 그림을 찾듯이 그곳에서 한민족의 숨결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작품을 전시할 때 디스플레이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다. 한지를 사용한 인화

방식과 조각난 프레임에 담긴 작가의도는 무엇인가.

한민족이라면 다함께 느끼는 이산(離散:diaspora)의 쓰라린 현실은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미래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시에 담고자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시는 한국의 고유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전시장을 꾸몄다. 사진은 전통한지를 곱게 다듬어 인화지로 쓰기에 알맞게 가공하고 그 위에 염료승화방식으로 프린트했다. 또한, 인화된 사진은 여백을 두어 다섯 쪽으로 세로로 자르고 한 자락씩 사진을 겹친 다음, 방패연과 두루마리에서 모양을 빌려와 같은 만뽕새로 아래 위 끝단에 덧가지를 가로로 붙여 사진을 팽팽하게 펴고 이를 무명실로 단단히 묶어 천정에 어설했게 매달아 고정했다. 이렇게 전시한 이유는 연이 예로부터 소식을 전하고 액을 날려버린다는 우리나라의 전통풍습에서 기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루마리 방식은 종이나 천을 여러 장 덧댄 후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가로로 길게 말아 감은 것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했다.

세 가지 스토리를 담아 《이주와 정주의 삶: 고려사람》전시를 구성했다. 개인적으로는 그 중 '고려인들의 거주공간' 섹션이 궁금한데, 전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가.

전시는 고려인들의 가족사진과 텅 빈 거주공간, 개인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소품이나 오래된 기념사진, 그리고 촬영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패널과 고려인들의 인터뷰영상을 볼 수 있는 어두운 방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고려인들의 거주공간 섹션의 사진을 전통한지에 프린트하여 세로로 자르고 중첩하여 무명실로 천정에 매단 이유는 겹겹이 쌓인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층위를 묘사하여 서로 다른 인물과 공간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민족이라는 단서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2017년 고려인 정주 8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게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를 진행해오고 있다. 두 국가에서 고려사람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시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2017년은 한국-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이자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정주가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이 쓰라린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에 대해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이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듯, 두 나라 사이에 공존하는 사회적 아픈 정서와 상흔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전시는 지난 4월에 서울 KF갤러리(4.6~28)를 시작으로 5월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르벤코 아트센터Shcherbenko art centre(5.11~31) 전시에 이어 지난 9월 8일부터 29일까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위치한 아트스빛 갤러리APTBIT Gallery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에는 키예프 순회전시를 마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 주최의 '까레아다2017'라는 매년 열리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축제에 초대되어 우크라이나 돔(UKRAINIAN HOUSE)에서 사진전을 가졌는데 계획이 없었던 아주 짧은 전시였지만 이 전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거주하는 많은 고려인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고려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미미하지만 어느 순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내가 나 혼자야 아니라 사회를 만드는 여러 명 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이다. 결국 사진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구현되겠지만 역사적 정서와 개인의 정서가 조화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



고려사람_이 에드워드_한지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_ 112.5x150cm_ 2016

정성태

정성태는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마쳤다. 2016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세르벤코 아트센터와 서울 나무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Breath in Chernobyl》 전시를 비롯하여 2017년 서울의 국제교류재단KF갤러리와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르벤코 아트센터 그리고 드니프로 아트스빛 갤러리에서 《이주와 정주의 삶-고려사람》 전시까지 아홉 번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그가 2013년부터 주목하는 사진작업은 이동과 흔적이다. 인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모티프를 찾아 작가의 내적형상을 표현하는, 일련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 중인 <고려사람(Etnichnyy koreetsy)> 사진작업도 그 실험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그의 작품은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르벤코 아트센터, 프랑스 파리의 르 캠피탈 갤러리, 우크라이나문화예술원, 성공회대학교 그리고 아트스빛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출판물로는 눈빛사진/선으로 간행된 『체르노빌 Chernobyl』, 『Picturesque Ankor』, 『The Dark Side of the Light』 그리고 우크라이나 세르벤코 아트센터에서 출판된 『Breath in Chernobyl』과 『Koryo-saram』 등이 있다.

Jung, Sungtae 《The life of movement and settlement : Goryeo people》 Diaspora, pieces scattered in Ukraine

Written by, Park, Yoonchae(yoonbluu@naver.com)

A photographer, Jung, Sungtae has been holding meaningful exhibitions by presenting <Goryeo People> Project in Ukraine and Korea. He captured the appearance of Goryeo people with the spirit of Koreans, both in his mind and in his camera. They are called 'Goryeo people', who are still living in former Soviet bloc, longing for their hometown after forced expulsion in 1937. Jung, Sungtae recorded the living and the places of Goryeo people(Kareisky) in the photos without any screening to show their attachment to life. The photos are not merely records of the surface but rather sincere portraits drawn after sharing emotional communion with the people, which arouses greater movement by the viewers. The year 2017 is the 25 year anniversary for Korea-Ukraine diplomatic ties and 80th year after the initiation of forced expulsion. The exhibition, <The life of movement and settlement: Goryeo people>, presents us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hurtful history of Korea and rediscover our national identity, which is also desired by the photographer.

Here in the secluded place of Ukraine, I could feel their life with my heart when I visited their homes read their faces. It is perhaps the bond we have as the same 'nation', and 'blood'.

As you were working on Goryeo people series for a long time, you have visited Ukraine for seven times. What was the motivation for you to take photographs in a remote place?

Every photographer experiences a slump when they work on pho-

tos and I also had a moment when I contemplated about my inner world and identity. I began to be interested in my old trace when I searched for new photos to work on. I had a motif in terms of the dark history of human beings and how they moved from places to places. It was the opportunity for me to express my inner world and deliver them as a story.

I did not intend to work on Goryeo people project from the start. Four years ago, I started 'Breath in Chernobyl' project by focusing on the ruins of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Ukraine and 'Samosely: self-settlers in Chernobyl). I have met Goryeo people living in Ukraine at that time watched how they lived. The was the beginning.

I can feel from your photos that you have special interest and affection in Goryeo people. What aspects of them gained your attention?

One day, I made time during the schedules when I worked on Chernobyl to take a pilot photograph of Goryeo people project. By the help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and Goryeo people association, I could visit a family of Goryeo people for the first time. I met a middle-aged couple there. The lady was looking far away sitting beside a window with a face without expression. I could feel emotions like vain, yearning, regression... It was delicate and intense feelings.

After taking photos, I listened to Arirang on the plane back to Korea and the music stroke my heart. I think Samosely coming back to Chernobyl, the Goryeo lady with expressionless face, and sad tones of Arirang caused resonance with one another. Two months after that, I heard the news that the lady passed away. That is when my heart began to move. I thought I should record their life(Goryeo



Koryo-saram_ Min Adolf _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_ 112,5x150cm_2016

people) before it is too late.

I believe you were able to see the living history by meeting them embracing the past. What was the conversation and communion you had with them?

Here in the secluded place of Ukraine, I could feel their life with my heart when I visited their homes read their faces. It is perhaps the bond we have as the same 'nation', and 'blood'.

It was not easy to go into their space and build rapport with them. First, I made a visitor list by cooperation of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and Goryeo people association, and contact them in advance before visiting. even so, it was not easy for them to welcome strangers even though we look alike. Especially, we had to carry a large shooting equipment, do a survey, and ask for permission to use the photos. However, most of them kindly welcomed me despite of my requests.

Before the shooting, I had at least 2~3 hours of time to build rapport with them. They open their hearts in the process. After that, I have 30 minutes to an hour of their time to take photos. Even for a short time, I press the shutters when something new starts to open when I go into their life as a member. This whole process is



Koryo-saram_ Kim Gennadiy_ 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_ 112,5x150cm_2016

not often finished after one time.

Their space might have been big or small. Did you have any difficulties taking photos?

I imagined that it would be better if I could put space into the frame, which represents their difficult time but also their attachment to life, such as tools or old photos but there were many places that were impossible to do so. I set where to shoot by conforming to the lighting direction. Even though there space had rather narrow passage with closed structure, I had to find how to adjust the changeable rhythm and feelings of natural light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s of people and space.

It seems like not only characters but also space is as important in photography. The meaning of housing might be very special to them and what was your message attached to the space?

When I visited their house, I felt that their space was full of emotional yearning. Maybe I experienced 'Phantom limb syndrome'¹⁾ by meeting them. As if I was watching a 'mirror box'²⁾ for treatment, I first thought of the word, 'hometown' and the image of 'Korean people'.

At first, I was curious about how they lived their life, their scar

1) Phantom limb syndrome refers to the phenomenon that people feel like they have certain body parts when they actually do not. Mostly, people feel that their arms and legs hurt, itchy and still attached to their body when they are amputated. 60~80% of the patients who went through surgical operation have these symptoms.

2) Mirror box is a virtual reality box with a mirror to treat phantom limb. Normal arm and phantom arm are put inside of the box. The patients look at normal arms reflected in the mirror but they feel like they are looking at both arms. These rehabilitation activities help recovery of voluntary movement of the phantom arms and reduce pain.

from the past, appearance of their family, etc. and the photos were focused on these things as well. Still, the family is still important but instead of focusing on their difficult and tough trace of life, I am more interested in their living space and environment. Since the theme of Goryeo people project was 'the life of movement and settlement', the story regarding 'Where is the place I could live?', 'How could my family live?' becomes the priority when making decisions on movement and settlement. Therefore, when I take photos, I focus on their living space reflecting their lives, not only focusing on natural expression of people. Like this, I repeated the process of reading their lives within the living space, finding the traces of Korean people and telling a story, like finding a hidden picture.

Your way of displaying the exhibitions is unique. What is your intention to print using traditional Korean paper and segmented frames? The hurtful reality of 'diaspora' that every Korean people experience should be endured by the individuals but I tried to deliver the hopeful message when the whole nation becomes one in the future. That is why I decorated the exhibition place using traditional Korean materials. A traditional Korean paper was refined to be used as photographic paper and it was printed using dye-sublimation method. Also, the printed photos were cut into five pieces with margins and overlapped.

The shape of Bangpae kite and scroll was used and a branch of bamboo was attached to tighten the photo, binding them with sewing cotton to fixate in the ceiling. The reason for this exhibition was due to traditional Korean customs that a kite delivers news and get rid of devils. Likewise, the scroll was made by putting over several pieces of paper and cloth and rolling them after writing a text or drawing a picture. It was made to be easily moved.

You composed 《The life of movement and settlement : Goryeo people》 exhibition with three stories. Personally, I am curious about the section, the living space of Goryeo people. Could you explain about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The exhibition is classified into family photograph of Goryeo p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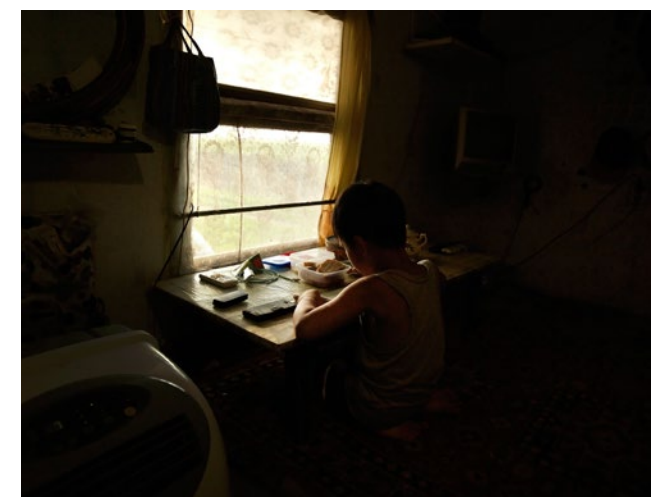
ple, props and old photos reflecting individual histories, video panel demonstrating the shooting process and a dark room with interview video clips. Among them, the photos of Goryeo people's living space is printed on a traditional Korean paper, cut vertically, overlapped and fixated on the ceiling with sewing cotton. It is intended to describe complex layers of life and find the evidence as Korean people commonly demonstrated in the different characters and space.

The year 2017 is the 80 year anniversary since the settlement of Goryeo people so it feels more meaningful that you are having exhibitions in both Ukraine and Korea. What is your intention to have exhibitions in two countries? Do you have any memorable moments during the exhibition?

The year 2017 is the 25 year anniversary for Korea-Ukraine diplomatic ties and 80th year after the initiation of forced expulsion and settlement. I think it is important to talk about the hurtful history of Diaspora and about Korea and Ukraine. As all the people should learn and remember the history not to repeat the dark history in the future, I hoped my exhibition to present the opportunity for the people to look back on the socially hurtful emotions and scars found in both countries.

The exhibition was started in last April in Seoul KF Gallery (4.6~28), Ukraine Shcherbenko art centre in May(5.11~31) and also from September 8th to 29th in APTCBIT Gallery located in Ukraine Dnepro. Last June, after the exhibition in Kiev, I was invited to the festival of Goryeo people, named 'Kareyada 2017' sponsored by Ukraine Goryeo people association. I had an exhibition in the UKRAINIAN HOUSE. Even though it was a brief, unplanned exhibition, I could meet a lot of Goryeo people living in Ukraine and make Goryeo friends.

In fact, compared to the present and history of our life, the existence of 'myself' is rather trivial but sometimes I feel that I am having an impact on others. It is when I realize I am not by myself and a member of society. Eventually, the photos will be created by individual imagination but harmony between historical emotions and individual emotions should be achieved for these reasons. ●



Koryo-saram_ Lee Edward' grandchildren- Denis_archival pigment print on korean paper_112.5x150cm_2016

Jung Sungtae

Jung Sungtae graduated from Photography and Video, General graduate school, Kyung-il University, and finished the doctorate coursework from the same university in 2017. He had 9 individual exhibitions such an exhibition 《Breath in Chernobyl》 at Ukraine Shcherbenko Art Centre and Seoul Namu Modern & Contemporary Art Gallery in 2016, 《Life of deportation and settlement: Koryo-saram》 at KF Gallery, at Shcherbenko Art Centre in Ukraine Kyiv and at Artsvit Gallery in Ukraine Dnipro. His photo works he paid attention from 2013 were evaluated as new experiment that searches motive from humans' dark history and expresses internal image of artist. Photo works 《Koryo-saram(Етнѳчний кореѳцы) in Ukraine》 presented in 2016 April with pictures of Ukraine 《Chernobyl》 were also located on this extension line. His collections are at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kraine, Shcherbenko art centre in Kyiv, La Capitale Galerie in Pari, Ukraine Culture and Art Council in Seoul, Sungkonghoe University in Seoul, Art Museum Artsvit in Dnipro and publications are 『Chernobyl』, 『Picturesque Ankor』, 『The Dark Side of the Light』 in Korea and 『Breath in Chernobyl』, 『Goryeo-saram』 in Ukraine.